

“교역·관광 등 다양한 분야 상호 우호 공고히”

유정복 시장-웁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장 접견 경제자유구역 투자 성과·개발 경험 관심 방문

인천시는 유정복 시장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웁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장을 비롯한 대표단 일행을 접견했다고 밝혔다.

웁옌 득 하이 부외장 일행은 정유택 국회의원과의 초청으로 공식방한 중 인천시 경제자유구역(FEZ)의 투자 성과와 개발 경험을 관심을 갖고 인정을 방문했다.

유정복 시장은 “대한민국과 베트남은 180년 국교를 맺은 이후 현재 30여년간 무역과 투자에서 비약적인 상호 발전을 이룩했으며 특히 지난해 12월 양국관계가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한민국과 베트남의 무역과 투자 발전에 대한 중점을 강조했다.

이와 웁옌 득 하이 베트남 국회부 외장은 “오늘 인천 경제자유구역(FEZ)을 방문한 세계적인 수준의 스타트업 자사를 구경하고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인천의 훌륭한 탄탄 투자성과를 직접 보게돼 대단히 뜻 깊었다”며 “앞으로 인천의 신진화 동시 도입 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활발하게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와 유정복 시장은 “이번 방문

을 통해 경제자유구역에 중점을 두어 발전해 나가는 인천을 소개 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교역, 공적개발원조(ODA), 관광, 인력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간의 우호를 더욱 공고히 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인천시는 베트남의 하이퐁시와 1987년 7월 25일 자매도시 결연을 맺은 이후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인도적 의료지원사업과 문화교류, 투자, 교류 등 지속적인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김동수 기자 ysd@incheonilbo.com



유정복시장(왼쪽)이 24일 시청 접견실에서 베트남 국회부장 웁옌 득 하이 부외장을 접견하고 우호교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 인천대일보

인천교통공사, 반부패·청렴성 향상

청렴시민감사관 3명 위촉...불합리 제도 건의 등

인천교통공사는 반부패·청렴성 이고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3일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했다

이와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23일 청렴시민감사관 3명을 위촉했다

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공직기관의 주



인천교통공사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 사진: 인천대일보 제공

시·관광공사, 찾아가는 관광·마이스 설명회

지원제도-행사장-숙박 1:1 원스톱 상담 등 30일부터 설명회 참가자 후속 업무도 계획

인천시와 인천관광공사는 24일 시청 프레스센터 3층에서 2023년 인천 찾아가는 관광·마이스(MICE) 설명회 및 개최했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글로벌 리호프빌 시드 새로운 관광·마이스 브랜드에 맞춰 수도권-여행-학 및 마이스 주최자, 여행사 관계자 150여명을 초청해 특색있고 다

재로운 마이스 개최지로서 인천이 가진 매력과 마이스 기반시설(인프라) 및 지원제도를 소개했다.

특히 인천마이스 홈페이지와 송도컨벤시아를 비롯한 호텔·리조트 등 관내 주요 관광·마이스 산업 관계자들과 국제회의복지지원사업의 지원제도를 소개한 ‘지원제도-행사장-숙박’의 1:1 원스톱 상담과 1:1 고대맞춤형 비즈니스 상

담을 운영해 참가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시와 공사는 마이스 행사의 인형 제어를 염두하고 있는 이번 설명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후속 업무도 추진할 계획이다.

황부에는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데, 인천만의 독특한 유니크패키지가 소개되고 있는 강원의 조양대리, 해운유지, 화문식 체험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나아가 정보 교류와 실제 체험을 순회시킬 수 있도록 고대맞춤형 마케팅

요사업과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감시, 시장 및 건의, 제보하는 외부 부패 통제인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장하는 민간 참여제 부패 예방 시스템이다.

공사는 지난 26일 6월부터 공개모집과 청렴시민감사관 선정위원회를 통해 3명(남성 2명, 여성 1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신규 위촉했고 총 5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을 자체감사 활동에 투입할 계획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비서관·무보수 명예직으로 임기 2년,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인천교통공사에서 실시하는 각종 감사 참여,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시정 및 건의, 각종 시민 불만사항 개선 제안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인천교통공사 유종호 상임감사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신규 위촉으로 인천교통공사의 내부부패 예방 강화와 감사활동이 투명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청렴시민감사관들의 다양한 활동으로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ysd@incheonilbo.com

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

활동 방향·세부 추진계획 논의 간담회

인천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대의원 심승수 의원은 최근 교육위원회 제1차(24일) 간담회 개최와 함께 활동 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을 통해 간담회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심 의원은 “마을교육 연구회는 마을교육사업의 정책적인 점검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행정당국을 비롯해 인천시의 마을교육과 비전을 수립하고자 한다.”

심 의원은 “저출산 시대에 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 돌봄이 함께 이뤄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는 교육의 정부의 국경

제의 일환으로 인천이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는 대표 심승수 의원을 비롯해 조현영·김영준·임준원 의원(이상 교육위원회)이 연구자로 참여하고 있다.

올해 11월부터 세미나·포럼·토론회·연구용역·사례 견학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통해 조세 제정 및 정책 제안 등 성과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박은희 기자 esd@incheonilbo.com



시의회 ‘인천형 마을교육 연구회’ 간담회 모습. 사진: 인천대일보 제공

서구, 중소기업 청년 복지공유

노을진 캠핑장 참가 신청 접수

인천 서구가 중소기업 청년 ‘복지공유’ 사업으로 오는 6월 10일 사용할 노을진 캠핑장 이용권 30개를 마련하고 참가 신청을 받는다고 24일 밝혔다.

김두현 서구청장은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넓혀주는 사업이다.”

이날은 “이번에 참가하는 노을진 캠핑장은 서구에서 2021년 10월, 30일 운영을 통해 15개 동아리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청년들이 “청년벤처 서구100” 개최지역에서 오는 4월 1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김동수 기자 ysd@incheonilbo.com

구는 지역을 확산하고 무직취업자에게 이용가 30명을 신청할 계획

한민정 기자 hmd@incheonilbo.com

“군민 의견 수렴 수요자 중심 인구정책 수립”

강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설문조사 홈페이지·카카오톡 채널 누구나 참여 가능

인천 강화군은 오는 31일까지 강화군민, 출생인 등을 대상으로 강화군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서를 진행한다.

설문조사는 강화군 홈페이지, 강화군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설문 문항은 강화군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인식, 강화군 인구정책 개선에 관한 정책 수요 등을 24개 문항이다.

강화군은 2004년 65,384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2023년 2월 말 기준

69,638명으로 2013년부터 연평균 0.5%의 인구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생산가능인구 15~64세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구상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상태라는 점은 알아둘 수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인구감소지

역 지역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여건 분석과 수요를 반영한 설문조사에 맞춤형 인구정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지난 2월 주민 의견 수렴을 추진했다.

유종호 군수는 “군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지역맞춤형 수요자 중심 인구정책을 수립해 우리 군이 직면한 저출산·고령화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수 기자 ysd@incheonilbo.com